

견우 직녀 만나는  
칠석七夕



## • 정의

음력 7월7일로 세시명절의 하나로 헤어져 있던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

## • 유래

옥황상제가 다스리는 하늘나라 궁전의 은하수 건너편에 부지런한 소를 키우는 목동 살고 있었는데 , 옥황상제는 견우가 착하고 부지런하여 손녀인 직녀와 결혼을 시켰으나 결혼한 견우와 직녀는 너무 사이가 좋아 , 견우는 농사일을, 직녀는 베짜는 일을 게을리 하였다 이를 본 옥황상제가 크게 노하여 두사람을 은하수의 양쪽 멀리 떨어져 살게 하였으나 부부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 된 까마귀와 까치들이 칠석날 두사람을 만나도록 하늘로 올라가 다리를 놓아 만나게 해주었다. 그날이 바로 음력 7월7일 ‘칠석(七夕)’ 이고 이후 까마귀와 까치가 놓아준 다리라 하여 ‘**오작교**’ 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.

## • 풍속

### ‘조선시대 [동국세시기]’

- **시짓기**: 잔치를 베풀고 성균관 유생들에게 ‘절일제’ 과거 실시, 학동들에게 견우와 직녀를 시제로 ‘시짓기 함
- **폭의, 폭서**: 여름 장마철에 옷가지와 책장의 책에 습기로 인해 곰팡이가 끼게 되므로 이를 막기위함
- **목욕하는 풍습**: 칠월칠석에 내리는 빗물을 약물이라 여겨 땀띠나 부스럼 등 피부병에 좋다고 해서 산간 계곡의 약수터, 폭포 등에서 목욕을 하기도 함

## • 음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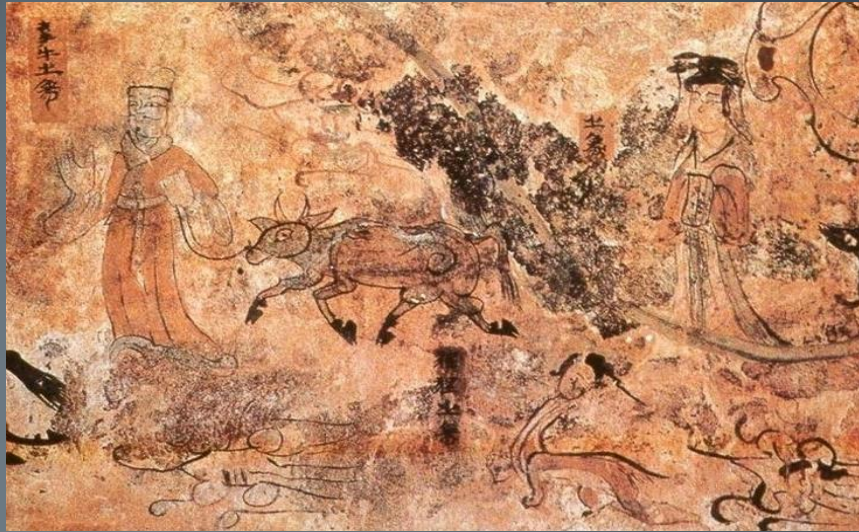
칠석에 먹는 음식은 여름 동안 고생했던 몸을 추스르기 위해 먹는 음식

**칠석에 밀전병을 먹는 이유:**

찬바람이 불기시작하면 밀가루 음식에서 밀 냄새나 맛이 덜해진다고 해서 칠석날 먹는 밀 음식을 그해의 마지막 밀음식으로 생각함

밀국수, 밀전병, 호박도래전(밀가루없이 부치는전),복숭아화채

고구려 고분벽화  
(덕흥리 고분군에 그려진 견우와 직녀 모습)



별자리 모양

